opusdei.org

12월 27일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그리고 보고 믿었다.

2019-12-26

✠ **요한**의 거룩한 복음. 20,2-8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묵상

오, "예수님께서 사랑한" 요한이여! 당신을 수식하는 그 '사랑받은' 이라

는 말을 당신은 얼마나 사랑하나요! 당신이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어렸습니다. 당신은 세례자 요한을 사랑했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추억을 쌓기 좋은 날에 세례자 요한은 애정에 가득 차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한아, 나는 네가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향한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네가 따라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후, 세례자 요한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 분이다.'

그러자 요한 당신은 당신의 발을 떼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신은 결코 "10시간 가량 되는" 그 시간 뿐 아니라 그 날을 잊지 못 합니다. 그러고

그 날부터 당신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은 산위에서, 바다에서, 성전 안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한, 당신은 그분께서 타볼 산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시는 동안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보았으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당신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질타를 받으셨을 때, 그분께서 배신을 당하셨을 때, 거절을 당하셨을 때, 버림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피로하셨을 때, 경멸당하셨을 때, 모두들 떨어져 나갈 때, 채찍질을 당하셨을 때, 모욕을 당하셨을 때...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도 친애하는 요한 당신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 당신은 가장 어렸지만 가장 용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 당신의 대담함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필요하셨을 때 그분께 위로를 드림에, 그렇게 예수님을 매우 사랑함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가장 사랑 받았고, 예수님의 가슴에 당신의 머리를 기대어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성모님께 당신을 맡긴 것입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그 젊음으로 인한 사랑은 이 얼마나 위안인가요. 정말 사랑에 미친 당신입니다!

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길 바랍니다. 젊은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길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는 법을, 십자가 옆에서 충실하게 서 있는 법을, 예수님을 위로해주는 법을...가르쳐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저의 집으로 데려오는 법을 가르쳐주길 바랍니다.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대영 요셉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12weol-27il-seong-yohan-sado-bogeumsaga-cugil/ (2025-12-15)